

청소년의 직업가치 추구 변화*

선혜연(宣惠娟)** · 황매향(黃梅香)*** · 김영빈(金榮嬪)****

논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업가치 추구의 특성과 그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다. 청소년 진로교육에 있어 직업가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직업가치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연구대상의 횡단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업가치의 변화 과정이나 직업가치와 관련된 개인의 발달적 특성을 탐색하는 데에는 제한점을 지녔다.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추적 조사한 2008년 한국청소년패널자료(Korea Youth Panel Survey)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업가치 추구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업가치 추구는 내적 혹은 외적인 직업가치의 특성에 따라 다른 변화양상을 보이는데, 외적 직업가치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변화하는데 반해, 내적 직업가치 추구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가치의 발달적 변화양상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러한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업가치 추구 변화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 주요어 : 청소년 진로교육, 직업가치변화, 내적가치, 외적가치, 종단연구

* 이 연구의 일부는 제5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함.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선혜연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전문대학원/ 충남 천안시 병천면 충절로 1800 / TEL: (041) 560-1357 / E-mail: hyseon@kut.ac.kr

*** 경인교육대학교

**** 고려대학교

I. 서론

최근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늘어나는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교육 및 상담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진로교육 및 상담의 목표는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을 촉진시키고, 청소년들이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적절한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에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청소년 진로교육 및 상담은 진로발달과 진로선택을 조력하는 과정이며, 이는 발달과 선택의 개념을 토대로 한 청소년 진로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개인이 자신의 특성과 일치하는 진로를 선택했을 때 선택한 진로에 대한 만족도와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로를 선택하려는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진로선택을 조력하는 진로교육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임인, 정윤경, 상경아, 2001). 일반적으로 진로선택을 위해 탐색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는 흔히 흥미, 적성, 가치, 능력 등이 중요하게 거론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직업가치는 진로선택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성일 뿐만 아니라 이후 진로에서의 적응 및 만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흔히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흥미와 적성을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해 온 경향이 있으나, 가치가 오히려 흥미보다 더 근원적인 의미를 가지며 개인의 진로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Brown, 1996; Dawis & Lofquist, 1984). Super(1973)는 진로상담에서 직업흥미검사가 더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가치는 흥미보다 더 본질적이며, 개인이 그의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그러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분야나 활동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가치를 규명하고 평가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교육 및 상담의 중요한 과업이 되고 있으며(이옥, 1993) 동시에 이러한 직업가치에 관한 발달적 이해는 청소년 진로교육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선행지식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특정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 원리나 믿음인 가치는 개인의 진로선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가치(value)는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선호되는 특정한 행동양식 혹은 궁극적 상태'로 정의된다(Rokeach, 1973). 이러한 가치 중에서 특히 직업 선택이나 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가치를 직업가치라고 일컫는데 '개인이 직업으로부터 기대하는 보상이나 특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김정숙, 2006; Daymont & Andrisani, 1984; Hearn & Olzak, 1981; Herzog, 1982; Leuptow, 1980; Marini et al., 1996), 대표적인 직업가치의 예로서는 '성취', '지식추구', '영향력 발휘', '사회적 인정', '자율', '능력발휘', '다양성', '변화지향', '창의성', '더불어 일함', '애국', '사

회봉사, '직업안정', '몸과 마음의 여유', '실내 활동', '보수' 등을 들 수 있다.

인간의 가치에 대해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Super, 1957; Super, 1995; Kluckhohn, 1951; Rokeach, 1973; Schwartz & Bilsky, 1987)은 가치를 둘 이상의 하위유형 혹은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Porfeli, 2007). 이 중 가치를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로 구분하는 방식은 심리학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가치체계 분류방식 중 하나이다. 직업가치 역시 크게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로 구분하여 이해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직업가치 분류 항목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예컨대 Super(1957)는 이타성, 창의성, 독립성, 지적 자극, 심미성, 성취, 관리 등을 내적 가치로, 생활방식, 안정성, 위신, 보수를 외적 가치로 구분하였고, Kalleberg(1977)는 일에 대한 흥미, 자율성을 내적 직업가치로 보고, 임금, 후생복지, 직업안정 등 물질적 보상이나 조건을 외적 직업가치로 보았다. 비록 이렇듯 학자들 간의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적 직업 가치는 직업 자체의 가치나 중요성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여기에는 적성과 흥미추구, 사회헌신, 인간관계 중심주의, 이상주의, 자기표현의 내용이 포함된다. 반면에 외적 직업 가치는 보수, 지위와 같은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권력추구, 경제적 가치추구, 사회적 인식증시, 안정추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김병숙 외, 1998).

직업가치는 개인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있는데 이 중에서도 성별은 직업가치에서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김정숙, 2006). 성별과 직업가치에 관한 선행 연구들(Singer & Steffire, 1954; Thompson, 1966; Wagman, 1965)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성은 사회봉사(이타적 요인)와 자아실현의 직업가치를 중시하는 반면 남성들은 인정, 보수, 지위, 독립성을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한주(1998)의 연구에서도 남학생들은 지도성과 수익성을, 여학생들은 대인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희연 등(2007)의 연구에서도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사회적 봉사나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내적 직업가치를 더 중요시하였고, 반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권력, 보수와 같은 외적 직업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가치에 대한 이러한 성별차이 연구는 대부분 횡단적인 자료분석을 통해 일정한 시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선호차이를 보여주는 것일 뿐 직업가치의 변화라는 발달적 관점에서의 성별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양한 인간발달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보이는 발달상의 차이가 직업가치관이라는 진로 발달의 영역에서도 확인되는 지에 관한 경험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

삶의 가치도 성장과정에서 변화하고 발달하듯이 직업가치도 고정되어 있기 보다는 변화하고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로발달이론 가운데 Gottfredson(1981, 2003)의 진로포부 발달단계 이론은 연령에 따른 직업가치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Gottfredson의 발달이론은 개인의 직업 포부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직업과 관련된 개인발달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즉,

힘과 크기를 지향하는 서열획득단계(orientation to size and power, 3-5세)와 자신의 성역할에 따른 직업포부를 발달시키는 성역할 획득 단계(orientation to sex role, 6-8세), 너무 낮거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직업을 제외시키는 사회적 가치 획득 단계(orientation to social valuation, 9-13세),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등과 같은 특성을 기초로 하여 직업선택을 이루는 내적 자아 확립 단계(orientation of the internal, unique self, 14세 이후)로 발달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Gottfredson이 직업가치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직업포부가 발달하는 각 단계별 기준인 '서열, 성역할, 사회적 지위, 개인특성'은 직업 선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업가치의 변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이란 아동에서 성인으로 발달해나가는 과도기적 단계의 인간을 뜻하기 때문에 발달은 청소년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진로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달적 관점에서 다양한 관련 주제가 연구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 진로선택에 있어 직업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지난 70여 년간 진행되었지만 (Dukes, 1955), 직업가치의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직업가치를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Porfeli, 2007). 게다가 연령에 따른 직업가치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수행된 몇몇 연구결과들마저도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가치관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예, Schwartz, 1994)이 있는 반면에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중요시하는 가치들이 변화한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Walsh et al., 1996). 예컨대 Lindsay와 Knox(1984)는 고3 학생들을 종단적으로 추적한 연구결과, 직업가치관이 매우 안정적임을 확인한 반면에 Wagman(1965)은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직업가치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 가치관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즉, 남자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볼 때 고등학생은 직업의 안정성, 독립성을 중요시하고 대학생들은 리더십, 흥미로운 경험, 존경을 중요시하였으며, 대학생과 성인을 비교해 볼 때, 대학생들이 흥미로운 경험과 명성을 중요시하는데 비해 성인은 안정성과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가치를 연구한 이옥(1993)의 연구에서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직업의 위세나 소득 등의 외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직업가치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보이는 불일치는 동일인의 가치변화를 보기보다는 각 연령대에서 표집된 상이한 연구대상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횡단연구로서의 한계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청소년 진로교육의 핵심 개념인 직업가치가 발달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진로발달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업가치 변화 과정을 종단적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직업가치가 발달연령에 따라 변화하는지 혹은 안정적인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업가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직업가치의 문화적 측면도 재조명

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직업가치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둘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내적 그리고 외적 직업가치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며, 두 직업가치의 변화 양상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내적 혹은 외적 직업가치 추구 경향의 양상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이하 KYPS)’에 참여한 2003년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 3,44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동일표본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 년도에 걸쳐 수집된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연도별 응답 학생수 및 남녀 비율은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연구대상 학생수 (괄호 안은 %)

성별	연도					
	1차년도(중2)	2차년도(중3)	3차년도(고1)	4차년도(고2)	5차년도(고3)	
남자	1725 (50.0)	1594 (50.0)	1572 (50.3)	1566 (50.2)	1510 (50.9)	
여자	1724 (50.0)	1594 (50.0)	1553 (49.7)	1555 (49.8)	1457 (49.1)	
전체	3449(100.0)	3188(100.0)	3125(100.0)	3121(100.0)	2967(100.0)	

2. 연구도구

1~5차 년도에 동일하게 사용한 KYPS 학생용 질문지 중 ‘직업선택’에 관한 5번 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5번 문항은 학생이 선택한 장래희망직업의 특성을 5점 Likert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5번의 총 15개 하위 문항에 대한 Cronbach $\alpha = .65$ 이며, 문항 제거시 전체 신뢰도 수준이 향상되는 15번 하위 문항을 제외한 14개 하위 문항에 대하여 외적 직업가치를 묻는 6개 하위문항(1~6번)과 내적 직업가치를 묻는 8개 하위문항(7~14번)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14개 문항의 Cronbach $\alpha = .68$ 이며, 외적 직업가치 6개 문항, 내적 직업가치 8개 문항 각각의 Cronbach $\alpha = .69$ 로 나타났다. 문항 내용은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2> KYPS 학생용 질문지 중 사용 문항

구분	문항내용
내적 직업가치	더 배우고 발전할 가능성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음 업무의 자유재량권이 많음 반복되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음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음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있음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할 수 있음 나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음
외적 직업가치	돈을 많이 벌 수 있음 권력이 많음 사회적 명예(위신)가 높음 시간적 여유가 많음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음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함

3. 분석방법

직업가치항목의 중요도, 외적 직업가치와 내적 직업가치의 년도별 평균 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일원배치 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학년에 따라 외적 직업가치 및 내적 직업가치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학년과 성별간의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 반선형모형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하여 통계프로그램인 SPSSWIN 12.0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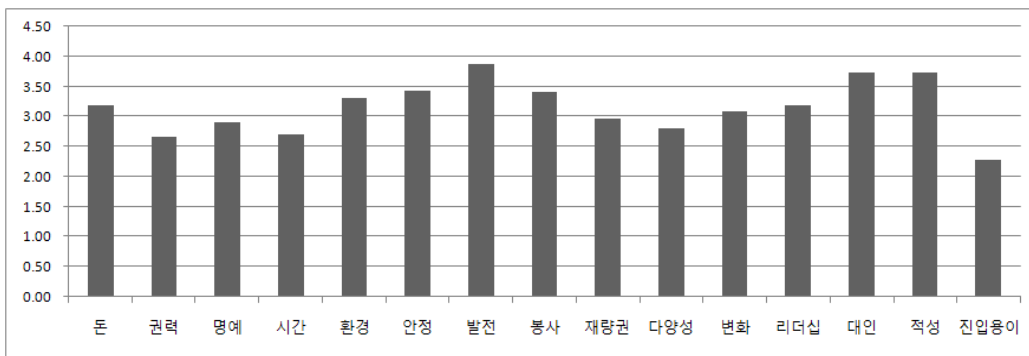
Ⅲ. 연구결과

1. 직업가치 추구의 하위문항별 평균비교

1~5차년도의 직업가치 추구 점수를 모두 합하여 비교한 결과,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의 특성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항목은, “7번 더 배우고 발전할 수 있음”이었다. 그 다음은 “13번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할 수 있음”과 “14번 나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음”으로 나타나, 1~3순위가 모두 내적 직업가치 특성이었다. 그리고 “8번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음”도 비교적 높은 순위의 내적 직업가치 특성이었다. 외적 직업가치 특성 중에서는 “6번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음”, “5번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음”, “1번 돈을 많이 벌 수 있음”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표 3> 직업가치 하위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문항	평균	표준편차	순위
01. 돈을 많이 벌 수 있음	3.19	1.06	7순위
02. 권력이 많음	2.67	1.04	14순위
03. 사회적 명예(위신)가 높음	2.91	1.10	11순위
04. 시간적 여유가 많음	2.71	1.13	13순위
05.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음	3.31	1.08	6순위
06.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음	3.43	1.19	4순위
07. 더 배우고 발전할 수 있음	3.87	1.00	1순위
08.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음	3.42	1.16	5순위
09. 업무의 자유재량권(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이 많음	2.97	1.24	10순위
10. 반복되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음	2.81	1.23	12순위
11.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	3.09	1.35	9순위
12.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있음	3.19	1.25	7순위
13.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할 수 있음	3.74	1.08	2순위
14. 나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음	3.74	1.09	2순위
15. 학력이 높지 않아도 얻을 수 있음	2.29	1.27	15순위



[그림 1]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가치 특성

2. 직업가치 추구의 학년별 차이

외적, 내적 직업가치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적 직업가치의 경우, 전체학생, 남학생, 여학생 모두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때에 비해 중학교 3학년 때 외적 직업가치 추구점수가 급격히 상승하여 최고점수에 이르렀다가 고등학교 1~3학년동안 꾸준히 유의한 하락을 보였다(표 4). 반면

<표 4> 외적 직업가치 추구의 학년별 차이 검증

성별	학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결과 [†]	
전체	1차년도(중2)	2914	3.12	.64	31.92**	b	
	2차년도(중3)	2548	3.20	.63		d	
	3차년도(고1)	2429	3.15	.61		c	
	4차년도(고2)	2434	3.10	.62		b	
	5차년도(고3)	2337	3.03	.63		a	
남자	1차년도(중2)	1395	3.07	.65	10.13**	a	b
	2차년도(중3)	1171	3.18	.66		c	
	3차년도(고1)	1141	3.13	.62		b	
	4차년도(고2)	1109	3.03	.63		b	
	5차년도(고3)	1076	3.11	.64		a	
여자	1차년도(중2)	1519	3.16	.62	18.00**	b	
	2차년도(중3)	1377	3.21	.61		c	
	3차년도(고1)	1288	3.17	.60		b	c
	4차년도(고2)	1325	3.07	.61		a	
	5차년도(고3)	1261	3.04	.63		a	

** $p < 0.01$, †Duncan 사후검증결과 부집단(a<b<c<d 집단으로 표시)

내적 직업가치의 경우, 전체학생, 남학생, 여학생 모두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평균점수로는 전체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차년도에 걸쳐 점진적인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표 5).

<표 5> 내적 직업가치 추구의 학년별 차이 검증

성별	학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1차년도(중2)	2918	3.47	.58	1.61
	2차년도(중3)	2548	3.47	.56	
	3차년도(고1)	2436	3.49	.57	
	4차년도(고2)	2432	3.49	.57	
	5차년도(고3)	2338	3.50	.60	
남자	1차년도(중2)	1397	3.49	.60	0.41
	2차년도(중3)	1170	3.48	.59	
	3차년도(고1)	1142	3.51	.59	
	4차년도(고2)	1110	3.49	.58	
	5차년도(고3)	1077	3.50	.62	
여자	1차년도(중2)	1521	3.45	.55	1.39
	2차년도(중3)	1378	3.46	.53	
	3차년도(고1)	1290	3.48	.56	
	4차년도(고2)	1326	3.49	.56	
	5차년도(고3)	1261	3.49	.59	

3. 외적 직업가치의 변화

학생들의 외적 직업가치 추구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 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다변량검정 결과,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외적 직업가치 추구점수에 차이가 있으며($F=25.75, df=4, p<.01$), Mauchly의 구형성 검정결과, 학년별 점수간에는 상호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W=.88, 근사\chi^2=173.790, df=9, p<.01$).

개체-내 효과검정 결과, 연도에 따른(학년에 따른) 외적 직업가치 추구점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개체-간 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외적 직업가치에 있어서 연도에 따른(학년에 따른) 유의한 변화를 보이며,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외적 직업가치의 변화 패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표 6> 외적 직업가치 추구의 개체-내 효과검정 결과: 학년, 학년*성별에 따른 효과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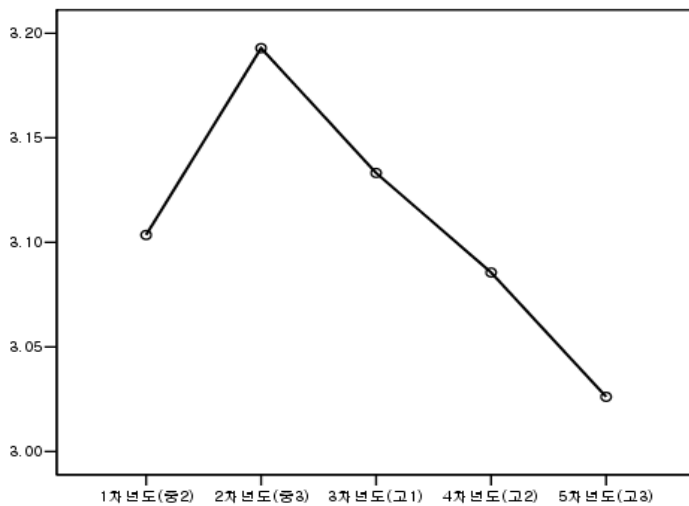
구분	제III유형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학년	28.26	4	7.01	27.51**
학년*성별	6.41	4	1.60	6.24**
오차(학년)	1349.79	5256	.26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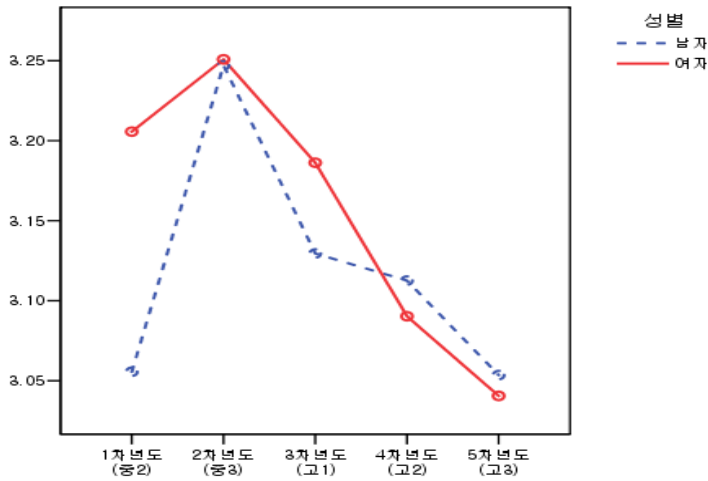
<표 7> 외적 직업가치 추구의 개체-간 효과검정 결과: 성별에 따른 효과검정

구분	제III유형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질편	62193.30	1	62193.30	67722.03**
성별	1.94	1	1.94	2.11**
오차	1206.73	1314	.92	

** $p<.01$



[그림 2] 학년별 외적 직업가치 추구의 추정평균



[그림 3] 학년별, 성별 외적 직업가치 추구의 추정평균

2. 내적 직업가치의 변화

내적 직업가치 추구의 변화는 외적 직업가치 추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에서 Mauchly의 구형성 검정결과, 학년별 점수간에 상호연관성이 있으나($W=.87$, 근사 $\chi^2=178.25$, $df=9$, $p<.01$), 학년에 따라 내적 직업가치 추구에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2.31$, $p>.05$).

개체내 효과검정 결과, 연도에 따른(학년에 따른) 내적 직업가치 추구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도 발견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개체-간 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내적 직업가치는 학년에 따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8> 내적 직업가치 추구의 개체내 효과검정 결과: 학년, 학년*성별에 따른 효과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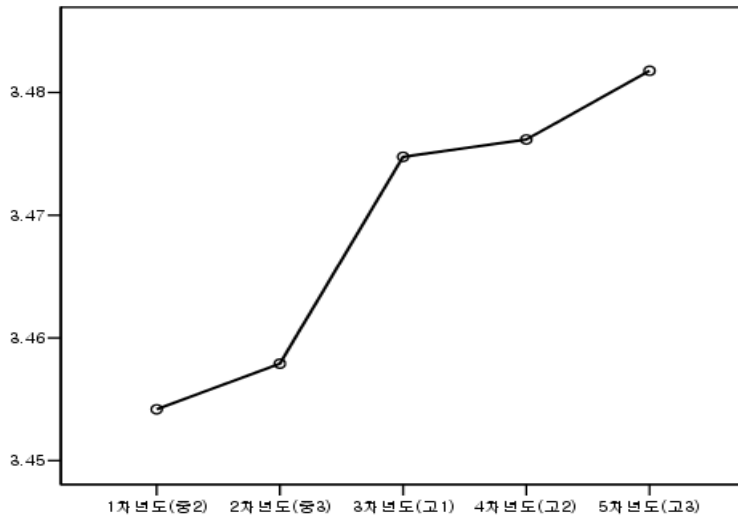
구분	제III유형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학년	1.87	4	.47	2.31
학년*성별	1.09	4	.27	1.34
오차(학년)	1069.21	5268	.20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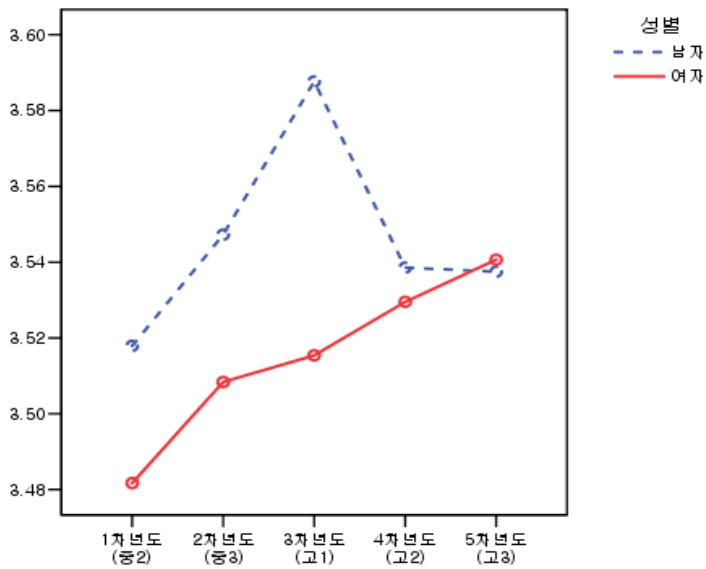
<표 9> 내적 직업가치 추구의 개체-간 효과검정 결과: 성별에 따른 효과검정

구분	제III유형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절편	78982.23	1	78982.23	92221.31**
성별	1.49	1	1.49	1.74
오차	1127.94	1317	.86	

** $p<0.01$



[그림 4] 학년별 내적 직업가치 추구의 추정평균



[그림 5] 학년별, 성별 내적 직업가치 추구의 추정평균

V. 논의

이 연구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추적 조사한 한국청소년패널 자료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업가치 추구의 양상과 그 변화 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와 이러한 결과가 실제 청소년 진로교육 및 상담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청소년들의 직업가치 추구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론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이 추구하는 직업가치는 비교적 생애초기에 결정이 되어 시간이 흐름에도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직업가치는 자신의 경험세계의 영향을 받아 청소년기와 성인기에도 계속 변화해 나간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두 주장 가운데 후자 쪽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이 초등학교 시기의 진로교육 및 지도의 목표로 제안되고 있지만(예, 김봉환 외, 2006; 이영대 외, 2004; 장석민, 2001) 초등학교 시기만이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꾸준히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조력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면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

둘째, 직업가치를 각각 질문한 문항별 분석결과를 보면, “더 배우고 발전할 수 있음”,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할 수 있음”, “나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음”이 1~3순위로 나타나, 일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음”,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음”, “돈을 많이 벌 수 있음” 등도 중간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나타나고 있으나, 직업을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다. 돈이나 안정성과 같은 외적 직업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직업을 통한 자신의 발전가능성이었고, 이어 대인지향과 소질 및 적성에 맞는 직업을 추구하고 있다. 물질만능주의와 매체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지만, 이 연구에서 나온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건전한 직업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직업가치를 외적 직업가치와 내적 직업가치로 나누어 그 변화 양상을 분석해 본 결과, 외적 직업가치는 고등학교 이후 계속 감소하는 데 반해 내적 직업가치 추구는 중학교 2학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가치의 변화 과정에 관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추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에 따른 외적 직업가치 추구의 감소는 진로발달이론과 일관성을 보인다. Gottfredson(1981, 2003)의 진로발달 이론의 발달단계와의 일관성이다. Gottfredson은 직업포부의 발달에서 초등학교 시기에는 사회적 서열과 자신의 능력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노력하여 성취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포부가 발달하는 반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흥미, 적성, 가치에 적합한 즉, 자신의 내적 특성에 맞는 직업에 대한 포부가 발달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직업의 사회적 지위는 직업가치 중 외적 직업가치에 가깝고, 직업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내적 특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내적 직업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적 직업가치추구의 감소라는 연구의 결과는

Gottfredson의 진로포부이론에서 제안한 발달과정을 우리나라 학생들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외적 직업가치 추구는 감소하지만 내적 직업가치 추구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논리적인 추론에 의하면 외적 직업가치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면 그와 반대되는 내적 직업가치 추구가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연령이 증가하면서 획득하게 되는 자율성을 고려해 볼 때에도 연령 증가에 따른 내적 직업가치 추구의 증가를 예측해 볼 수 있다. Ryan과 Deci(2000)의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자율성의 지지가 내적 가치 추구를 촉진한다고 하였고,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혜연 등(2007)의 연구에서도 자율성 지지를 받는 청소년들의 내적 직업가치 추구 수준이 높았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자율성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직업가치 역시 내적 직업가치 추구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서는 이러한 내적 직업가치 추구가 확실하게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행연구로부터 충분한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면밀히 검토되기를 기대한다.

다섯째, 이러한 직업가치추구의 변화에 있어서 남녀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은 직업가치추구의 변화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로발달 전반에서 남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고, 오래 전 연구이지만 Wagman(1965)의 연구에서 가치추구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발견된 것을 고려하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과는 상반되는 연구결과이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나 기존의 진로발달 이론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연구결과들이 최근 조금씩 소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포부의 남녀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초등학교 시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진로포부를 보이지만,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남녀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황매향, 박은혜, 유성경, 2006). 따라서 진로발달에 있어 남녀차이에 대해서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후속연구를 통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업가치 발달과정을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이지만,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직업가치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론이나 선행연구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업가치 발달과정에 대한 가설이나 모형을 설정하지 못하고 기술적 연구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직업가치 발달에 대한 증거들을 더 수집하고, 그 발달과정에 대한 모형을 제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둘째, 종단연구의 특성상 자료수집에서 탈락되는 자료의 성격이 연구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학교중단 청소년들의 자료가 체계적으로 탈락되었을 경우, 이런 학생들의 직업가치 추구 경향성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가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 또는 청소년 개인별 특성에 따른 발달의 차이 등도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 성적에 따른 차이, 계층에 따른 차이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영배 (2004). 중학교 청소년의 직업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 패널조사 I.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동수 (1987).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직업선택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병숙, 강일규, 진미석, 장원섭, 김해동, 권진희, 정윤경, 정현식, 이양구 (1998). 한국인의 직업의식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학교진로상담 2판. 서울: 학지사.
- 김정숙 (2006). 중학생의 직업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1), 79-102.
- 박광춘 (1992). 수산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결정형태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4(1), 16-29.
- 박보경, 이종승 (2002). 직업성격 유형과 적성 및 직업가치관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발전논총. 23(2), 59-83.
- 선혜연, 황매향, 김영빈 (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직업가치 추구. 상담학연구, 8(2), 549-563.
- 양한주 (1998). 중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직업선호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한주, 정철영 (1998). 중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직업선호도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17(1), 41-54.
- 이석재 (1989). 성별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선호 가치. 교육학연구. 28(1), 135-145.
- 이영대, 임언, 이지연, 최동선, 김나라(2004).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수립.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이옥 (1993). 한국 학생청소년의 직업개념인식과 직업가치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5, 32-44.
- 이은경 (2002).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 및 진로의식 성숙과의 관계. 학생생활.
- 임언, 정윤경, 상경아 (2001). 직업가치관 검사 개발 보고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석민 (2001). 진로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화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황매향, 박은혜, 유성경 (2006). 학업우수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직업포부수준 비교. 상담학연구. 7(4), 1137-1151.
- Brown, D. (1996). Brown's value-based, holistic model of career and life-role choices and satisfaction. In D. Brown, L. Brooks and Associates(1996). *Career choice and*

- development* (3rd ed., pp. 337-372). Sanfrancisco: Jossey-Bass.
- Dawis, R. V. & Lofquist, L. H. (1984). *A psychological theory of work adjustment: An individual-differences model and its application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Daymont, T. N. & Andrisani, P. J. (1984). Job preference, college major, and the gender gap in earning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9(3), 408-428.
- Dukes, W. F. (1955). Psychological studies of values. *Psychological Bulletin*, 52, 24-50.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 Gottfredson, L. S. (2003).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compromise, and self-creation. In D. Brown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4th ed., pp. 85-148), San Francisco: Jossey-Bass.
- Hearn, J. C. & Olzak, S. (1981). The role of college major departments in the reproduction of sexual inequality, *Sociology of Education*, 54(3), 195-205.
- Herzog, A. R. (1982). High school seniors' occupational plans and values: trends in sex differences 1976 through 1980, *Sociology of Education*, 55(1), 1-13.
- Kalleberg, A. L.(1977). Work values and job reward: A theory of job satisf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1), 124-143.
- Gluckhohn, C. (1951). Values and value-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In T. Parsons & E. A. Shils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pp. 383-433).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euptow, L. B. (1980). Social change and sex-role change in adolescents orientations toward life, work, and achievement: 1964-1975,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3(1), 48-59.
- Lindsay, P., & Knox, W. E. (1984). Continuity and change in work values among adults: A longitudinal stud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 918-931.
- Marini, M. M., Fan, P., Finley, E., and Beutel, A. M. (1996). Gender and job values, *Sociology of Education*, 69(1), 49-65.
- Porfeli, E. J. (2007). Work values system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0, 42 - 60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ss Press.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Schwartz, S. H. (1994). Are there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human values? *Journal of Social Issues, 50*, 19-45.
- Schwartz, S. H., & Bilsky, W. (1987). Toward a universal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3), 550-562.
- Singer, S. L., & Stefflre, B. (1954). Sex differences in job values and desires, *Personnel & Guidance Journal, 32*, 483-484.
- Super, D. E.(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Y: Harper & Row.
- Super, D. E. (1973), *Work in America, A report of a special task force to the secretary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MIT Press.
- Super, D. E. (1995). Values: Their nature, assessment, and practical use. In D. E. Super & B. Sverko (Eds.), *Life roles, values, and careers: International Windings of the Work Importance Study. The Jossey-Bass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series* (pp. 54-61).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Thompson, O. (1966). Occupational values in high school students, *Personnel & Guidance Journal, 44*(8), 850-853.
- Wagman, M. (1965). Sex and age differences in occupational values, *Personnel & Guidance Journal, 44*, 258-262.
- Walsh, B. D., Vacha-Haase, T., Kapes, J. T., Dresden, J. H., & Thompson, W. A. (1996). The values scale: Difference across grade levels for ethnic minority student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6*, 263-275.

* 논문접수 2008년 12월 24일 / 1차 심사 2009년 2월 17일 / 2차 심사 2009년 3월 9일 / 게재승인 2009년 3월 18일

* 선혜연: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전문대학원(진로 및 직업상담 전공) 대우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초심상담자를 위한 집단상담", "상담과 심리검사", "진로상담기법", "청소년 진로선택과 부모의 영향" 등이 있다.

* e-mail: hyseon@kut.ac.kr

* 황매향: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와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청소년 발달문제와 상담", "상담과 심리검사", "진로탐색과 생애설계", "학업상담", "초등교사를 위한 문제행동 상담 길잡이" 등이 있다.

* e-mail: maehyang@ginue.ac.kr

* 김영빈: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저서로는 "초심상담자를 위한 집단상담", "상담과 심리검사" 등이 있다.

* e-mail: kybean@korea.ac.kr

Abstract

The Change of adolescents' Value Pursuing in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Seon, Hye-Yon* · Hwang, Mae-Hyang** · Kim, Young-B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nge of adolescents' value pursuing in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The KYPS(Korea Youth Panel Survey) longitudinal data for 5 years is analys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shows that Korean adolescents' extrinsic value pursuing is changed, on the other hand, intrinsic value pursuing has not been changed as they grow up. Lastly discussion is focused on the meaning of these findings and the suggestions for the further studies.

Key words: adolescent value pursuing, work values, intrinsic value, extrinsic value, career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orea University